

스마트 치안과 관련된 해외사례*

임운식

치안정책연구소 스마트치안지능센터 행정관



1. 서론

스마트 치안(Smart Policing)이 제언되기까지 여러 이론이 영향을 미쳤다. 가장 중심이 되는 두 가지 방향성은 '증거기반행정'이라는 행정 일반 이론에서 파생된 정보기반 경찰 활동과 컴스텟 등이 있을 수 있고, 지역사회와의 환류에 중점을 둔 문제중심 경찰활동, 지역사회경찰활동, 깨진유리창이론 등이 있다.

이중 정보기반 경찰활동(Intelligence Led policing)은 스마트 치안(Smart Policing)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데, 정보기반 경찰활동(Intelligence Led policing)은 경찰 및 법집행기관, 넓게는 민간 및 사회공동체 등 다양한 주체 간 정보유통, 분석, 제공을 통해 범죄를 감소시키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1990년대 영국의 KENT 경찰청에서 시작한 정보기반경찰활동은 현재 영국전역은 물론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 경찰의 지향점으로 전파되고 있다. 특히 9.11 이후

* 본 자료는 장광호(2018) '스마트 치안의 적용을 위한 효과적 범죄분석의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영향요인에 대한 한국 경찰관의 인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미국은 등급별 정보역량을 강화하고자 KENT 모델을 지역사회의 모델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 디트로이트 경찰의 경우 2008년 디트로이트에서는 인구 1000만 명당 폭력범죄 발생율이 19.7%에 달할 정도로 범죄가 빈발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경찰국은 범죄 분석팀을 신설하고 사전 대응적 경찰활동을 해나가기로 했다.

범죄다발지역에 집중하여 신고 대응시간을 단축하고, 전 관할지역에 대한 조직적 접근을 강화했으며 경찰활동을 강화하여 지역 사회의 지지를 얻어 원활한 정보수집을 용이하게 했고, 주민들의 감시 활동 협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전담부서를 통해 온라인 지도를 개발하여 홍보하고 주민들에 대한 범죄예방 유의 전자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은 경찰관-범죄분석팀-지역사회가 세 축으로 함께 했고, 2010년 폭력범죄 지수가 7.9%로 감소되었다. 이 같은 성공사례는 문제해결경찰활동, 정보기반경찰활동과 일정부분 겹치며, 문제의 진단, 정확한 접근, 자원의 배분, 계량적 평가 등의 요소를 같이한다.

한편 스마트 치안(Smart Policing)의 이론적 모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범죄분석¹⁾인데, 미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 범죄정보²⁾와 범죄분석을 분리한 모델을 사용하였고, 1990년대 범죄분석을 활발히 발전시키다가 9.11이후 범죄정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범죄분석의 발전을 지체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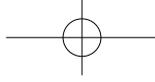
하지만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범죄정보와 범죄분석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된 기술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임으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 전형적인 제도가 영국의 국가정보모델(National Intelligence Model)인데, 사건/관서/지역/국가 단위의 범죄 정보를 통합하고 평가하면서 개별적 범죄 대응을 위해 정보를 취급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사업제도화, 과업의 조정, 정보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복합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듯 범죄정보와 분석은 개별 사건에 대한 정보에 기초한 범인검거, 범죄통계에 입각한 정책수립과 평가, 다양한 정보에 기반한 경찰자원(인력/예산)배치 등 역할과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또한 정책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도 범죄정보를 통한 환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범죄분석이 영국과 미국의 경우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제도와 조직운영 그리고 기술적 현황을 고찰해 보고, 미국의 스마트 치안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범죄분석이란 “범죄에 대한 이해, 범죄와 무질서의 감소, 범죄예방 및 평가분야에서 경찰을 보조하기 위한 범죄와 무질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인구학적, 시공간적 요소를 포함한 여타 경찰관련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말한다.

2) 범죄정보는 주로 범죄자 또는 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로서, 예컨대 범죄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 어떠한 범행을 계획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것이다.



II. 스마트 치안(Smart Policing) 해외 사례

1. 미국사례

스마트 치안의 특징은 범죄와 무질서라는 문제에 대해 데이터를 분석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도출하고 그 평가 역시 객관적으로 환류하는 방법론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 뿐 아니라 연구기관의 협업을 통해 과학성을 부여하려 노력한다. 또한 경찰만의 노력이 아닌 지역사회의 참여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미국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전문화된 정보 분석 시스템 개발들이 많은 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뉴욕경찰

컴퓨터기술과 범죄통계 및 데이터를 결합한 경찰활동 패러다임이라는 컴스텟이론은 스마트 치안을 이루는 이론적 요소이다. 뉴욕 경찰에서 시작된 컴스텟은 범죄감소를 목적으로 기존 발생 범죄를 분석하는 통계시스템을 말하며, 통계를 이용한 과학적 범죄대응 프로그램의 대표사례이다. 이러한 전통을 가진 뉴욕경찰은 911 사태 이후 안전에 대한 국가적인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다양한 변화를 도입하였다. 우선 정보시스템측면에서는 뉴욕에서 운영하는 각종 범죄관련 DB, 공공서버를 통합한 지도기반시스템(Domain Aware System)을 개발했다.

이를 DAS(지도 기반 시스템, Domain Aware System)라고 하며, 이 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뉴욕경찰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년 넘게 협력하여 개발했고, 2012년에 현장에 완전히 정착했다. 이 시스템은 개설 당시 분산 관리되던 35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했는데, 대표적으로 뉴욕 주 범죄기록, 가석방 및 보호관찰파일, 뉴욕시 형사고발, 체포, 소환기록, 3,100만건 이상의 국가범죄기록, 330억 건 이상의 공공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도기반시스템(DAS)에는 경찰이 접속 가능한 각종 전산망들이 시스템에 나열되어 있고 시스템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현장 출동경찰관에게 가능한 현장의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경찰관의 피살 및 부상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뉴욕경찰은 조직적 측면에서 실시간 범죄센터(Real Time Crime Center, 이하 RTCC)와 연합지령센터(Joint Operation Center, 이하 JOC)를 각각 도입했다. 실시간 범죄센터(RTCC)는 수사지원(Investigative Support), 청소년범죄(Juvenile Crime), 얼굴식별(Facial Identification) 등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 개설되었다.

RTCC의 수사지원반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중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수사 지원하는데, 그 지원 내용에는 범죄패턴탐색, 비디오판독, 성문분석(911), 대중매체 조사 등이 포함되고 주요 사건의 용의자별로 보고서를 작

성하여 지원하기도 한다.

한편 연합지령센터(JOC)는 DAS라고 하는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운영하여 테러나 범죄와 관련된 현장정보를 감지하고 경찰관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실시간범죄센터(RTCC)는 과거 범죄기록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형사나 경찰관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림 1〉 범죄감시시스템 DAS 활용사례



2) 로스앤젤러스 경찰(LA P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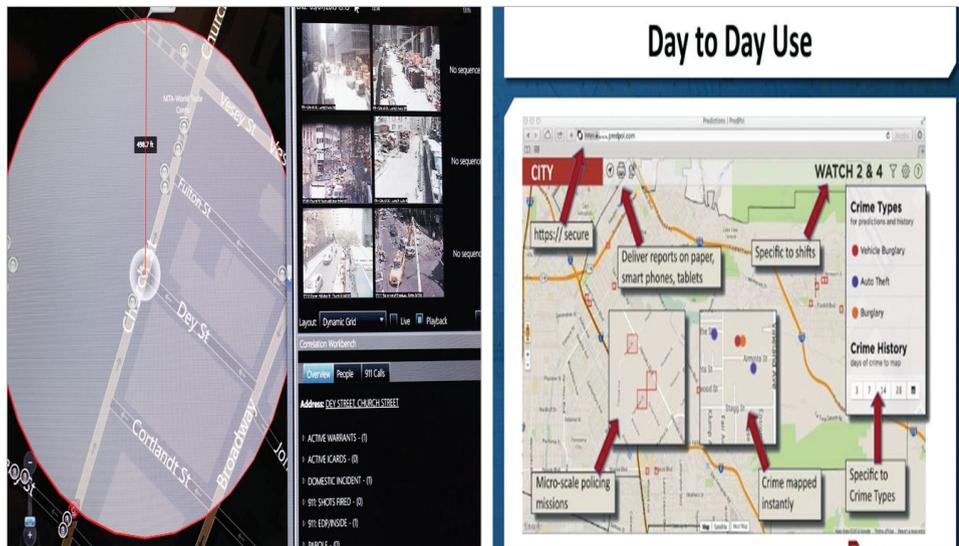
로스앤젤러스 경찰(이하 LA경찰)에서도 뉴욕과 같이 실시간분석-대응센터(Real-Time Analysis and Critical Response Center)와 범죄통계과(CompStat Division)를 운영하고 있다. 이 조직의 기반은 뉴욕경찰의 컴스탯 활동이었는데, LA경찰은 컴스탯에 지리적 범죄분석 기술을 도입해서 프레드폴로 발전시켰다.

프레드폴(Pred Pol)은 예측 치안을 뜻하는 'Predictive Policing'의 약칭으로 주로 강도, 절도 등 재산 범죄유형에 대한 발생예측을 범죄 예방활동에 적용한다. 영화 '마이네리티 리포트'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누가 저지를 것인지를 예측하는데, 프레드폴은 누가 범죄를 저지를 것인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과 시점을 예측하는 것이다.

LA경찰은 프레드폴을 차량절도 등 재산(property) 범죄를 예측하고, 그 예측에 따른 경력배치를 위해서 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LA 전역의 범죄 현황을 전산관리하며, 매주 권역에서 경찰서장 등 대표들이 모여서 범죄현황을 확인하고 운영대책을 수립한다. 이런 논

의를 통해 관리자들은 프레드폴 분석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 장소를 순찰 하도록 현장 경찰관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경찰관이 예측된 범죄 장소에 실제로 어느 정도 방문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의 일일 보고서나 순찰차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2013~2014년 간 범죄율 20%가 감소했고, 차량절도 사건의 20%, 강도사건의 32%가 감소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림 2〉 Pred Pol 활용 사례



3) 스마트 치안 적용사례

스마트 치안(Smart Policing)은 미국 법무부에서 채택되어 운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인 'SMART Policing Initiative' 를 통해 지역 경찰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면서 정립되어 가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미국 스마트 폴링 과제들은 총 79개 과제가 진행 중이며, 목표 범죄나 적용 기술 측면에서 총기범죄, 강력범죄, 가정폭력, 강도, 절도 등 재산범죄, 약물범죄, 정신이상범죄 등 다양하다. 또 사용하는 도구나 접근 방향에 초점을 맞춰 웨어러블카메라, 조직변화 등이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미국의 스마트 치안 적용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총기 범죄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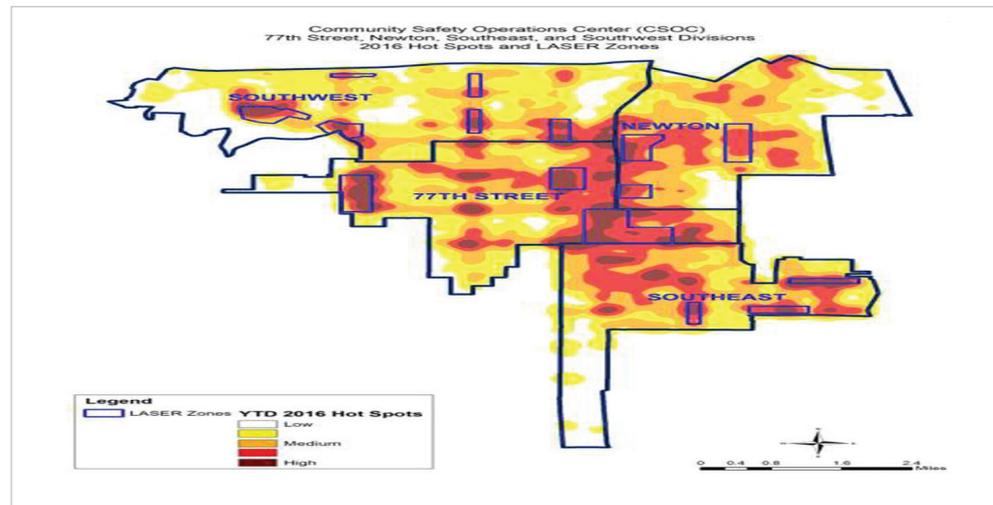
'11년 로스앤젤러스 경찰국은 정의안전전략재단(Justice and Security Strategies, Inc)과 합동으로 로스앤젤러스에서 총기범죄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6년('06~'11)간의 총

기 범죄, 체포자, 신고 출동에 대한 통계들을 지리적 분석했다. 로스앤젤러스 경찰은 장소와 행위자들을 모두 대상으로 한 'LA 전략 확산과 재구성 프로그램(약자 LASER³⁾)'이라는 전략을 입안했다.

이 프로그램은 로스앤젤러스에서 폭력 및 총기관련 범죄감소를 위해 만성적인 장소와 만성적인 폭력범죄자를 겨냥한 것이다. LASER의 핵심원칙은 범죄자와 범죄영역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와 같은 비 침습적인 기법을 사용하며, 적절한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중요 사항을 측정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며, 성과와 결과에 중점을 두고, 헌법상의 경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것이다.

한편 범죄정보국(CID)은 「상습 범죄자 정보」라는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범죄 경향과 최근 수사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 LA경찰은 집중적이고 선제적인 경찰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 활동 기간 전후 데이터를 비교한 바, 대상 지역에서 살인, 강도는 모두 눈에 띄게 감소했다.

〈그림 3〉 총기범죄 활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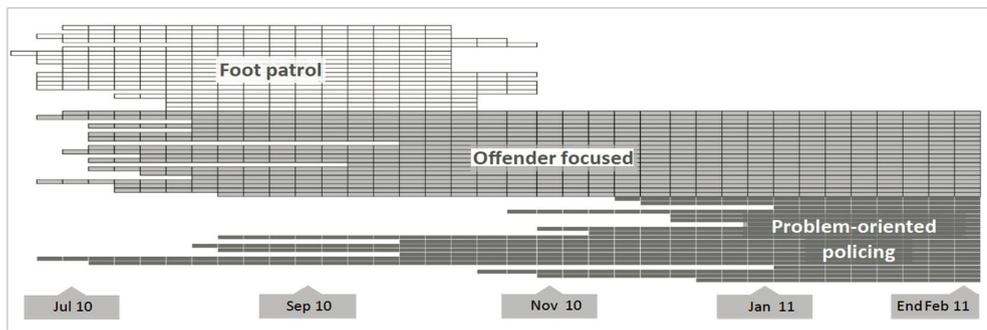
(2) 강력범죄대응

필라델피아 경찰은 템플대학(Temple University,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과 합동으로 폭력범죄의 빈발지를 분석하여 경찰력을 배치에 활용했다. '09년 사건을 지리적으로 분석하여 81개의 빈발지(hotspot)를 놓고, 3가지 전략을 사용했다.

3) 'Los angels Reducing Gun-Related Violence Through Operation'의 약자이다.

27개소씩 각각 도보 순찰, 환경 개선이나 지역사회 참여 등 문제해결 경찰활동, 상습 범죄자에 대한 관찰과 경고, 교화 등 ‘범죄자중심전략’을 실시했다. 그 효과로 정책시행 기간 동안 예전보다 모든 강력 범죄가 22% 감소하고, 거리 강력범죄가 33% 감소했다. 그리고 3 가지 방법 중, 범죄자 중심 전략이 도보순찰이나 문제 지향 경찰활동보다 범죄 감소에 더 유용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림 4〉 필리델피아 사례



(3) 강도범죄 대응

팜비치 스마트폴리싱(Smart Policing) 전략은 문제에 대한 데이터 중심 분석, 지역사회 참여, 문제해결 및 파트너십과 같은 지역사회 지향 정책 철학의 핵심원칙을 반영한다. 또한 팜비치 스마트폴리싱은 경찰의 합법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피해위험 인식개선,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범죄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포함한다. 예컨대 강도 형사가 재배치되어 이민자 지역의 모든 강도 사건을 조사하고 지역사회 연락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 전역에 사전 순찰을 실시하고 범죄자 및 전과자를 모니터링 한다.

플로리다 팜비치 카운티 레이크 워스(Lake Worth)시에는 거주 인구 중 40%가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이며 '02년 이후 강도가 꾸준히 증가했다. 강도 증가 원인으로 주민 이동과 고용이 유동적이며, 주민들의 언어가 다양하며 문맹률이 높아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연구파트너인 린 대학과 함께 이민자 공동체와 협업 관계 구성, 범죄예방 교육, 강도 단속을 꾸준히 진행했다.

그 결과 구역 내 이민자들의 경찰에 만족도와 신뢰도가 개선되었고, 강도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 사례는 공동체 중심 경찰활동의 전형으로서 경찰 기관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문제점들이 이민자 공동체 협의체에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절도범죄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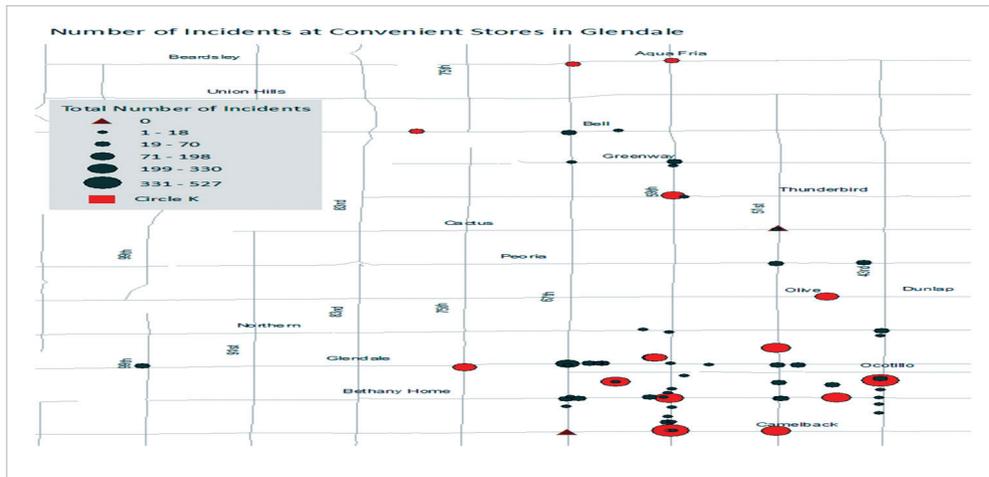
글렌데일 경찰의 스마트폴리싱(Smart Policing) 전략은 기물파손과 버려진 주택이나 아파트단지에서의 범죄를 감소시킴으로써 편의점 강·절도를 줄여나가는 것이었다.

또한 경찰의 스마트 치안 노력을 시민에게 많이 알리는 것도 대응책이었다. 글렌데일 팀은 서클 K편의점의 절도범죄 다발지역에 집중했는데, 이는 다른 상점 체인보다 서클 K에서의 절도가 많아 고객과 종업원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현상으로 인해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경찰에게 큰 부담이 가해질 수 있는 잠재적 요소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글렌데일 경찰은 아리조나 주립대학과 함께 편의점 대상 범죄를 해결하고자 지리적 분석을 실시했고, 범죄의 원인으로 범죄자에게 표적이 되기 쉬운 상품 배치, 야간 시간대 체인의 인력/관리 미흡 등을 제시하고, 서클 K를 비롯하여 다른 편의점에도 환경 개선을 권장했다.

그러나 자원 투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민간의 변화를 유도하기 쉽지 않았다. 글렌데일 경찰은 글렌데일 지역 인접 도시의 경찰과 합동으로 서클-K 편의점의 범죄 피해를 분석하고 발표하여 여론을 조성했고, 이 과정에서 계량적 분석 결과를 근거로 활용했다. 이 과정을 통해 글렌데일의 편의점 대상 범죄가 감소하고 민경 협력이 강화⁴⁾되었다.

〈그림 5〉 글렌데일 편의점 사례



4) 서클-K 편의점은 경찰차량의 주차장소로 편의점 주차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범죄가 예방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2. 영국사례

영국은 범죄정보를 경찰활동에 활용하는 제도적 노력이 가장 오래된 나라로 범죄분석을 위한 정보유통체제를 표준화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범죄분석 운영체제는 국가, 광역, 지역단위로 분류할 수 있다.

1) 국가단위 범죄분석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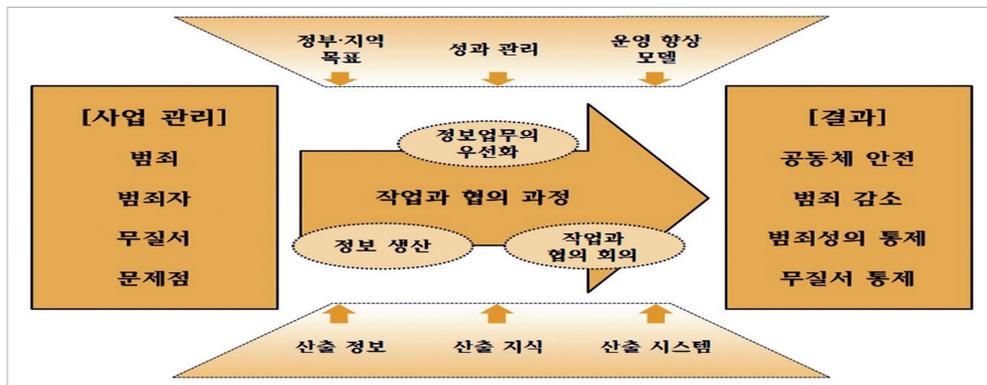
영국의 범죄정보 유통은 영국정부가 2002년부터 도입한 정보체제인 국가정보모델 NIM(National Intelligence Model, 이하 NIM)을 기본으로 하며, 영국은 경찰기관 내(기능 간, 관서 간) 및 여타 다양한 법집행 기관 간에 범죄정보를 체계적으로 유통하고 기관별·부서별 역할을 조정하기 위해 모든 경찰/법집행/정부기관이 범죄에 대한 정보를 기록, 평가, 유통, 활용하는데 있어 국가정보모델(NIM)이라는 통일된 규격과 기준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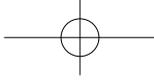
국가정보모델(NIM)의 유통 체계는 정보보고서의 작성, 정보의 평가(원천, 내용, 활용 범위), 사용 결정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정보모델(NIM)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경찰은 범죄에 대한 경찰 자원투입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작전을 수행한다.

한편 국가경찰조직인 국가범죄청(National Crime Agency, 이하 NCA)은 정보국 소관으로 실행조정팀(Tasking and Coordinating)을 두고, 국가범죄청(NCA) 및 영국 전체의 정보 흐름을 평가하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판단하며 이를 통해 영국 내 경찰 기관들로부터 매일 지난 24시간 발생한 특정 현상이나 사건, 예상되는 위협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고 이를 내무부에 보고한다.

그리고 국가범죄청(NCA)정보국은 여러 법집행 기관들의 정보시스템을 연동하는 ADDAM이라는 정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보의 종류에 따른 하위시스템이

〈그림 6〉 영국 국가 정보모델





존재한다. 그 외에도 법집행기관과 민간영역 간 정보를 교류하고 수집된 정보를 목록화하여 유지하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공공 영역 간 정보교류가 사적 연결고리에 한정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지면서 관리하게끔 하는 제도이자 보안성과 연결된 이중 저장 장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과 민간 영역 간 정보교류는 법규에 근거하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고 정보의 순환을 통해 상호 도움이 되는 방향을 추구한다고 한다.

2) 광역단위 경찰의 범죄정보운영(런던 경찰청)

런던경찰은 영국 내 가장 큰 경찰기관으로서 국가범죄청(NCA)이나 그 전신인 중대범죄청(SOCA) 설립 전까지 영국 전역의 범죄정보를 분석하여 대응하는 가장 전통적인 대응 활동을 해 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기록·평가·배포팀, 전화·통신 등 정보팀, 트위터·페이스북 등으로 공개된 정보팀을 운영하고, 특정 작전에 대해 정보를 지원한다. 또한 민감정보를 취급하며 다른 법집행기관 간 관계에서 위장요원, 수용소 정보 등을 포함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한다.

한편 런던경찰청은 자원배분을 위한 전술적 측면에서 범죄피해를 분석하기도 하는데, 인터뷰를 통해 특정지역의 노트북 절도 추세를 지리적으로 분석한 사례, 장물의 유통을 분석하여 시장의 변동을 분석하는 사례, 조직범죄활동에 있어 범죄빈도(양적 측면)나 심각도(질적 측면)를 분석하여 대응정도를 결정하는데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선제적 경찰활동'에도 활용한다.

선제적 경찰활동은 경찰력을 미리 행사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개념이다. 강력한 순찰 및 초기 검거, 정도로 이해되기 쉽지만, 그것보다는 큰 범주의 활동으로, 높은 위협의 범죄에 대해 조기 제압 방법을 찾아내어 진압하는 활동이다. 예컨대 중대한 혐의에 대해 아직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미 규명된 작은 범죄의 증거를 활용하여 국외 추방으로 범죄를 중단시키는 방식이 이에 해당된다.

3) 기초단위 경찰의 범죄정보운영(포츠머스 경찰서)

기초단위 활동에서 주목할 점은 영국 고유의 통합적 범죄분석이다. 미국이 범죄 통계와 사건정보, 심리행동을 각각 전문적으로 분류하여 발전시킨 반면 영국은 이를 통합 분석하여 유용하게 발전시켰다는 견해가 있다. 햄프셔(Hampshire) 경찰청 산하의 포츠머스 경찰서 정보부서는 국가정보모델(NIM)에 맞춰 수집된 정보를 재정리하고 분석하여 자체 경찰활동에 반영한다. 주로 활용되는 분석은 범죄빈발지역이나 연쇄범죄에 대한 지리적 분석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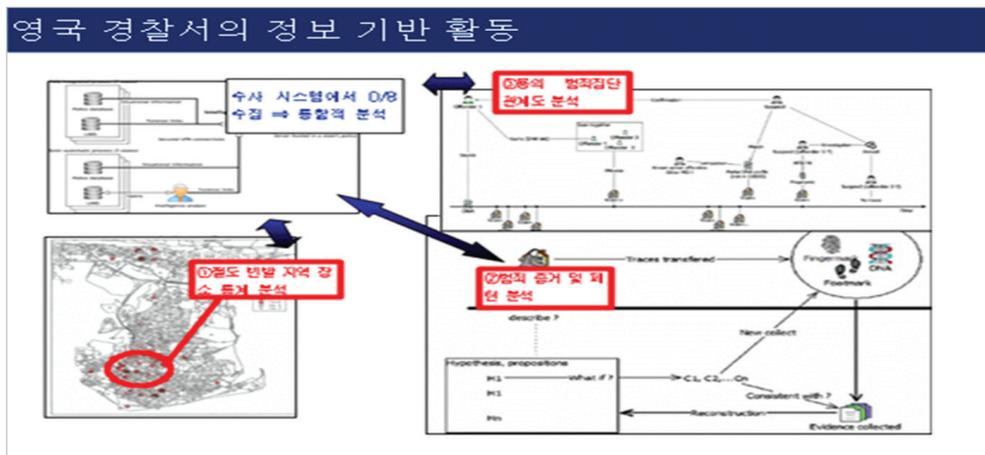
포츠머스 경찰서에서 분석활동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적·통계적 분석을 통해 특정지역에 침입절도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 분석은 해당 지역의 순찰과 수사를 강화하는 의사결정에 반영된다.

둘째, 범죄행동정보를 확인한다. 분석된 침입절도의 범행시간, 장소, 범행수단, 주요 피해품 등에서 예전에 발생했던 절도범과 유사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분석은 재범가능성이나, 당시 공범·모방범들을 추적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셋째, 범죄사건 정보를 통한 분석으로 추적하고자 하는 범죄 집단에 대한 정보를 최근 확보한 다른 자료를 통해 시각화하고 단서를 발굴하는 과정이다. 예컨대 당시 범죄 집단들, 혹은 확보한 용의자들의 통화내역 등을 상세 분석하고 현재 추적하는 절도집단의 특정 용의자가 의심스러울 때 그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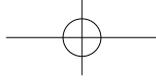
〈그림 7〉 영국경찰의 정보기반 활동



III. 맺음말

이상에서와 같이 미국과 영국의 스마트 치안 사례를 살펴보았다. 스마트 치안의 두 가지 방향성은 증거기반 행정과 지역사회 환류인데, 영국이 정보기반 경찰활동이 잘 이루어져 있다면, 미국은 지역사회와의 환류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은 자치경찰 운영의 전통에 기반하여 기관 간 수평적 연결을 중시하고 명령이 아닌 정보로 상호 조정하는 체제를 발전시켜온 나라로 범죄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데 있어 국가정보모델을 통해 통일된 규격과 기준을 사용하여 법집행 기관 간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통하고 각 기관별 역할을 조정하고 있다.



즉 영국은 국가-광역-기초단위의 체계적인 분석 체제의 설정과 표준화, 통계-심리-행동-사건정보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영국과 같이 각 주마다 통일된 규격과 기준은 없지만 실시간 범죄센터(RTCC)를 통해 주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범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 수사 경찰을 지원하고 있으며, 프레드폴(PredPol) 전산프로그램과 같이 다양한 범죄분석 기술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스마트 치안을 실행하는데 있어 범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경찰, 연구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커넥션이 잘 이루어져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미국, 영국의 스마트 치안의 공통점은 문제의 정의와 전략의 구성, 평가에 데이터를 활용하며 그 개선을 추구한다는 점과 전문적인 분석 역량을 갖춘 연구 기관을 파트너로 하여 분석하고 그 활용결과를 환류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객관성과 과학성을 높이고 다양하게 발전해온 경찰활동 이론과 개발 기술을 실제 활용에 반영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이론과 실무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스마트 치안은 우리나라 경찰의 조직과 제도 운영에 있어 지향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특히 미국 뉴욕의 지도기반시스템(DAS)은 출동 경찰관들에게 현장의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경찰관의 피살 및 부상을 방지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경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영국의 범죄분석을 위한 정보 유통체제는 향후 우리나라 경찰의 범죄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을 수립하는데 착안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